

tic accuracy of most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Based on aspiration cytology samples, the subclassification of lymphomas is readily achieved.

16. 다발성 골수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 탐식성 형질세포가 증식한 1례 보고 -

순천향대학부속병원 해부병리과

곽정자, 권계현, 김동원, 진소영, 이동화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에서의 탐식성 형질세포의 출현은 매우 드물어, 1908년 Lowley 등의 보고 이후 세계적으로는 20례 정도, 국내에서는 1례가 보고되어 있다. 발생빈도는 전체 다발성 골수종의 1.3%이며, 탐식성 형질세포는 주로 적혈구계 세포를 탐식하여 다발성 골수종에 있어서 빈혈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복벽종괴로부터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여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하고 추후검사로 확진한 적혈구와 혈소판을 탐식한 형질세포의 증식을 보인 다발성 골수종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68세 여자환자로서 약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안구 돌출을 주소로 본원 안과에 내원한 후 좌측 안와의 혈관종 의심하에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좌측 상복부 복벽에 3×3cm 크기의 단단한 종괴가 촉지되어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소견상 다수의 동일한 모양의 비정형성 형질세포들이 도말되었고 일부 세포의 세포질내에 적혈구를 탐식하고 있었다. 검사 소견상 혈색소 11.1 g/dl, 헤마토크리트 32.4%, 백혈구 5,200/ μ l이었고 총단백이 11.4 g/dl(A/G ratio 0.52)로 증가되어 있으며, 혈청 칼슘 8.6 g/dl, creatinine 0.8 mg/dl이었다. 혈청단백전기영동에서 γ -globulin region에 M-peak가 관찰되었고, 면역전기영동에 의하여 IgG, kappa 로 확인되었다. X선 소견상 두개골에 골용해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골수도말검사에서 전 골수세포의 약 30%가 미성숙한 형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세포질내의 적혈구와 혈소판을 탐식하는 세포가 다수 관찰되었다. 안와 종괴의 조직소견은 뚜렷한 핵인을 가진 동일한 양상의 미성숙한 형질 세포가 판상으로 증식하고 있었으며 종양 세포의 세포질은 kappalight cha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였다.

17. Ki-1 양성 대세포 림프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Ki-1 positive large cell lymphoma

순천향대학병원 해부병리과

권계현, 곽정자, 김동원, 진소영, 이동화

Ki-1 양성 대세포 림프종은 주로 T세포로부터 소수에선 B세포로부터 기원하며 소아에 많고 대부분 림프절비대 또는 피부병변이 나타나고, 예후가 불량하며 형태학적인 특징은 크고 세포질이 많은 다형성세포들이 B세포지역은 보존되어 있으면서 동양구조를 흔히 침윤하여 때로 전이성암종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또한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leukocytic common antigen은 약한 양성이나 음성이며, epi-

thelial membrane antigen 등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특징적으로 Ki-1 항원에 강양성을 나타낸다. 저자들은 경부 림프절의 흡인세포검사로서 전이된 비인두암종과 감별이 어려웠던 Ki-1 양성 대세포림프종 1례를 보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60세 남자 환자로서 1년전부터 경부에 다발성 종괴가 만져졌고 과거력상 약 10년전에 폐결핵을 앓았으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 악하부에 약 3×2.5 cm 크기의 임파절 한개와 좌측 악하부와 경부에 약 0cm 크기의 작은 임파절들이 다수 만져졌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대동맥주위나 간십이지장 인대, 간문맥부의 임파절이 다발성으로 커져있었으며 비종대가 관찰되었다. 양측 경부 임파절에서 세침흡인세포 검사상 성숙한 림프구로 구성된 배경에 단독세포, 때로는 군집을 이루며 심한 다형성을 보이는 이상한 모양의 다핵의 거대세포들로부터 면역아세포를 닮은 세포까지 다양하였다. 대부분의 핵은 각 이 지거나 또는 분엽상으로 거친 염색질과 몇 개의 크고 호산성의 핵소체를 함유하였다. 적출된 림프절의 크기는 $1.2 \times 1 \times 0.7$ cm 이었고 현미경소견상 림프절의 대부분은 세침흡인검사서 보인 세포로 구성되었으며 때로 동양구조의 침윤을 보였다. 면역조직화학검사상 암세포는 Ki-1에 강양성, LCA와 UCHL1에 약양성, cytokeratin과 S-100 단백질에는 음성반응을 보였다. 전자현미경검사상 종양세포의 핵은 크고 뚜렷한 핵소체가 관찰되었으며 세포질은 풍부하고 polyribosome이 다수 관찰되며 종양세포의 일부에서 세포사이공간에서 미세융모가 관찰되었다.

18. 간엽성 연골 육종의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

-1례 보고-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esenchymal Chondrosarcoma

-Report of a cas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인애, 송상용, 함의근, 이상국

간엽성 연골육종은 골이나 연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서 그 세침흡인 세포학적 소견은 그리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최근에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사 후 절제되어 간엽성 연골육종으로 진단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24세의 여자로서 8개월 전부터 시작된 등쪽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흉부 방사선검사상 후종격동 부위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7×4 cm 크기의 넓은 기저부를 갖는 종괴가 흉벽의 후내측에서 늑골에 밀착되어 관찰되었다. 세침 흡인 검사상 주로 관찰되는 세포는 세포질이 거의 없이 림프구와 유사한 질계 염색되는 핵을 가졌고, 일부는 가느다란 혈관들의 주위에서 관찰되었다. 한 두 군데에서 이들 세포집단들과 연결되어 넓은 연골조직 조각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악성 비정형핵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적출된 종괴는 $7 \times 4 \times 3.5$ cm 크기였고 무게는 45gm이었다. 표면은 소엽성으로 둥글고 미끈하였고 피사가 관찰되었으며 광학현미경검사상 간엽성 연골육종으로 진단하였다. 세침흡인 세포검사상 연골조직편이 포함되지 않고 작은 미분화 세포들만이 흡인된 경우 다른 둥근 세포 육종이나 림프구성 질환과의 감별을 요하고 간엽성 연골육종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연골조직편이 관찰된 경우라도 본 예와 같이 흉부 병변인 경우 과오종과의 감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